

휴수저 창업·재산 사회 환원 ... 호남 자존심 키우는 부자들

담양 출신의 카카오 김범수(55) 의장이 국내 순자산 부자 1위에 올랐다.

완도 출신으로 모바일 앱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봉진(46) 의장 역시 김범수 의장과 함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호남출신의 이들 기업인이 '한국형 창업신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옛 명성을 잃어가는 와중에 지역 출신 젊은 창업부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실천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9일(현지시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순자산은 134억달러(약 15조4000억원)로 국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카카오 주가는 올해에만 91% 급등했으며, 김 의장은 주가 고평행권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재산을 60억달러(약 6조9000억원) 이상 불렀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김 의장이 수십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재벌 총수와 그들의 2-3세대를 부자 랭킹에서 모두 제쳤다는 사실에 블룸버그통신

담양 출신 김범수 카카오 의장·완도 출신 김봉진 배달의민족 의장
유망스타트업 키우고 기업이 정신 실천...한국형 창업신화의 주역

은 주목했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 여덟 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을 정도의 '휴수저'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게임'을 창업했던 그는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 '아이위랩'을 세우고 4년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출시해 '국민 메신저'로 키워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 결제, 금융, 게임, 차량호출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코로나 19 비대면 시대 속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네 번째로 많으며, 카카오 자회사들은 잇단 기업 공개(IPO)를 단행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과 함께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주)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새로

운 기업가상으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 소안면의 한 작은 섬 구도에서 태어난 김 의장은 2010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주)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해 기업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성장시킨 한국 스타트업계의 신화적 인물이다.

지난 6월에는 자신의 고향 완도의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태블릿PC를 나눠주는 '우아한 기부'를 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해 '완도 군민의 상' 수상자에 선정되면서 장보고장학재단을 통해 중고생 1838명에게 태블릿PC를 한 대씩 나눠줬다.

김 의장은 "고향인 완도 군민의 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완도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태블릿PC를 선물하게 됐다"고 소감을



김범수 의장

김봉진 의장

전했다.

김범수, 김봉진 의장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더 기빙 플레지'에 참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더 기빙 플레지'는 워런 버핏 버크셔셔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2010년 함께 설립한 자선단체다.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야 가입 대상이 되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회원이 된다.

이들 자수성가형 기업가들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

받거나 지위가 세습된 '재벌'들과는 차별화된 길을 걷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오로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축적한 부를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고 있다.

CJ에서 콘텐츠 산업육성을 담당했던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 속에서 상속부자가 절대적 우위를 점해왔지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맞아 창업부자가 두각을 드러내는 미국형 산업환경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며 "광주에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지닌 기업을 100번째 유치하는 등 200여 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 동아리에서 출발해 전 세계적 인기 게임을 탄생시킨 '사우스포 게임즈'와 창업 4년 경력에 연 매출 10억원을 넘긴 드론산업 스타트업 (주)그린어어 등 호남 출신 기술창업가들이 촉망받고 있는 사실이 반갑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서정 도마 동메달... '부녀 올림픽 메달' 감동

올림픽 여자체조 사상 첫 메달
아버지 여흥철 애틀랜타서 銀



'도마 공주' 여서정(19·수원시청)이 한국 스포츠 사상 첫 '부녀(父女)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록을 작성했다.

여서정은 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 기체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733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련기사 7·11·18·19면>

우리나라 올림픽 여자 체조 사상 처음 기록된 메달이다. 또한 지난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25년 만에 대를 이은 역사적인 메달이기도 하다.

여서정의 아버지는 광주 출신의 여흥철(50) 경희대 교수다. 그는 애틀랜타 대회에서 착지 실수로 아쉽게 금메달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만든 '도마황제'다.

25년이 지나 딸이 올림픽 도마 결승 무대에 섰다. 여서정은 예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800점을 기록하며 전체 5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난도 6.2의 연기를 선택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고난도 기술을 뛰었던 아빠의 뒤를 이어 만든 기술 '여서정'이 여서정의 승부수였다.

'여서정'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여2(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두 바퀴 받을 비틀어 내리는 90도 회전 기술)'보다 반 바퀴를 덜 도는 난도 높은 720도 회전 기술이다.

수행점수 9.133점을 보낸 여서정은 안정적인



1일 오후 일본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기체체조 여자 도마 결선전. 한국 여서정이 연기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착지로 15.333의 가장 높은 점수를 만들었다.

2차 시기에서도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 하필 착지에서 실수가 나왔다. 애틀랜타 올림픽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여흥철은 당시 2차 시기에서 결정적인 착지 실수를 하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난도 5.400을 연기한 여서정은 세 걸음이나 뒤로 무르면서 14.133에 만족해야 했다.

1, 2차 시기 평균 14.733으로 연기를 끝낸 여서

정은 가슴 졸이며 남은 3명의 연기를 지켜봤다.

그리고 8명의 연기가 모두 끝난 뒤에도 그대로 여서정의 이름이 3위를 지키면서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탄생했다.

이날 KBS 해설위원으로 딸의 연기를 지켜보던 여흥철 교수는 마지막 선수의 최종 점수가 나오는 순간 뜨거운 함성을 지르며 '아빠'의 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 체조는 1988년 박종훈의 도마 동메달

을 시작으로 2016년 리우대회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서정은 이날 여자 선수 최조이자 10번째 메달을 기록했다. 한국 체조의 유일한 금메달은 광주 출신의 양향선(29·수원시청)이 2012년 런던대회 도마에서 만들었다.

한편, 도쿄올림픽 여자 양궁 3관왕 안산을 비롯한 양궁 대표팀이 이날 귀국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1625억 확정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전남도 총 복구액 1625억원의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에서 최종 반영됐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해남 535mm, 장흥 469mm, 진도 458mm의 강진 362mm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30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가 심한 해남, 강진, 장흥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면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례적으로 재난종료일로부터 13일 만에 신속하게 지정됐으며, 전남도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협업해 이뤄낸 성과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해남 605억원, 강진 226억원, 장흥 200억원, 진도 269억원, 기타 시군이 325억원 등 총 1625억원이다. 전국 시·도 총 복구액 1804억원의 90%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에는 235억원(장흥 13억원, 강진 24억원, 해남 129억원, 진도 69억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업 분야 피해를 본 지역주민 2만4000여명에게는 지속적인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5억원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명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EQ

EQA

This is for a new gen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학성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암대로 1041(화정동)
 MB 인공충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명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흥대로 603(반남 20소문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점검
 EQA 25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연간)4km/kWh | 4.1 | 도상: 4.3, 고속도로: 3.9 | 1회 충전거리(km) : 306, 공차중량(kg) : 1985, 배터리 용량(kWh) : 6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외에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